

6·25 특별인터뷰

원효종 종정 법흥스님이 말하는 해인사 소실위기

“80여 대중 호법의지 대장경 사수”

6·25전쟁 당시 해인사 원주로 있으면서 해인사를 폭파·소실의 위기로부터 구해낸 원효종종정 법흥스님(82세)을 스님이 주석하는 부신 금수사에서 만났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천진동인(天真童顏)에 정확함을 잃지않은 스님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국보 29호)이 오늘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실화를 듣는다. <편집자 주>

—먼저 북한군이 해인사로 진입하던 당시 상황을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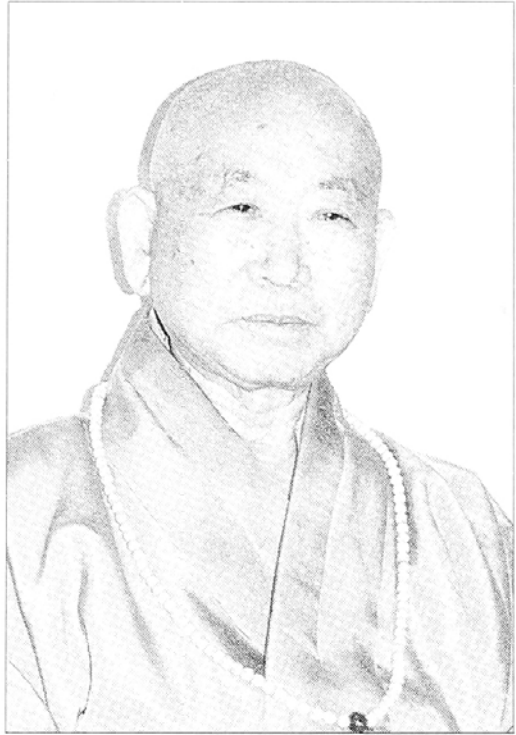
▲제가 32세 되던해에 인연이 닿아 해인사로 갔었어요. 효봉스님께서 방장, 혼해스님(임적)께서 주지로 계시던 때였지요. 당시 해인사에는 구산스님 원명스님 보성스님 등이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절 안살림을 보는 원주 소임을 맡게 됐는데 얼마후 6·25가 발발했어요. 장경각을 사수하기 위해 약 80여 대중들과 더불어 피난도 안가고 남아 있었습니니다. 7월14일로 기억됩니다만 김천에서 남하하던 북한군 8백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젊은 인민군들은 저녁공양을 마치고 11시가 지나자 퇴설당에 계시던 20여 노스님들을 모아 놓고 회초리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백성의 피

은 장발당에 낙동강전선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합천임대는 완전히 북한군으로 적화된 상태였었고 아주 살벌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법보종찰을 온전하게 구하셨는데 그때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내 혼자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80여 대중의 호법의지였지요.

당시 UN군 비행기는 북한군만 보면 폭격했습니다. UN군의 폭격을 모면하기 위해 피를 냈습니다. 북한군들을 약수암·삼성암·국일암 등 각 암자로 분산시켜 속식토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5일만에 북한군 책임자와 내무서장이 부르더니 “왜 김일성수령을 반대하는



◇6·25 당시 해인사 원주 소임을 맡아 인민군에게 고초를 당하며 해인사를 지켜낸 일을 회고하는 법흥스님.

산내암자 군사작전지로 사용 북한군 800명 경내훼손·스님구타

“UN군 폭격때 암자마다 공산군 분산 속식유도”

를 빨아 먹는다”고 막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지요. 마음공부하면서 자체적으로 농사지어 먹고 사는 노스님들에게 행동이 지나치다고 달랬습니다. 또 폐병걸린 분들도 많다고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6·25때 산속에 위치한 대부분의 전국 사찰은 전화를 입었습니다. 폭격이나 방화로 소실된 곳도 수없이 많았는데요. 당시 해인사는 어떠한가요.

▲당시 산내 암자는 군사 작전지로 활용됐던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지요. 특히 국일암에는 군사조직부가 결성됐을 정도이고 젊은 스님들

나, “왜 아군이 오면 암자에 재우느냐”며 급방이라도 죽일 기세였어요. 그래서 공여직으로 “김일성수령이 세계적 보물인 고려대장경을 잘 보호하라는 지령을 인민으로 하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령의 명령이라는 말이 어필도리가 없었는지 “앞으로는 아군이 오면 본사에 재우라”고 명령하고는 돌려보내줬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있었을까 이번에는 본사에 야전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내무서장에게 진정서를 내도 효과가 없어서 합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묘산에 야전병원을 내게

됐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UN군 폭격을 받아 초토화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고 북한군이 후퇴했을 때도 해인사가 무사하지 않았던데요.

▲그랬습니다. 북한군이 보물창고(장경각 등) 열쇠를 내놓으라고 해요. 하는 수 없어서 내방으로 가지고 가고서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관음전 근처 물계단에서 한명이 걸려 넘어지자 뒤따르던 군인도 영커서 넘어졌어요. 이때다 싶어 담을 넘어 극적으로 뛰었습니다. 파발총을 마구 갈겨대더군요. 정신없이

뛰어 대밭에 이르러 기절해버렸습니다. —전란의 시기에 원주소임을 맡아 법보를 지켜낸 배경에는 스님과 해인사간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될 일입니까? 불보살님의 무한한 가피력이 있었던 게지요. 호국안민·국태인안을 염원하며 고려대장경을 조성하던 옛조상님들의 원력이 전란으로부터 법보를 구해낸 것 같습니다. 그 정신 길이 계승해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고나면 또 나와 대상이 들어 아닌 도리를 알기위해 다시 돌아야 합니다. 참성품지에는 너·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놓고 너도 그 자리에 놓는 작업을 해야하지요. 나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 하지만 네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아닌 한 주인공이 나·너를 둘로 보는 생각이 죽어야 불(不二)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나와 대상이 들어 아닌 도리를 알기위해 다시 돌아야 합니다. 참성품지에는 너·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놓고 너도 그 자리에 놓는 작업을 해야하지요. 나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 하지만 네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아닌 한 주인공이 나·너를 둘로 보는 생각이 죽어야 불(不二)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이윤호 기자

세번 죽어야 하는 의미는

스님의 법문집을 보니까 불법공부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셨는데 요지는 ‘세번 죽어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으로 이해하기엔 첫째, 참선의 발견 둘째, 물이법의 터득 셋째, 보살도의 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세번 죽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주현·충북 음성군 대소면>

첫째는 죽어야 나를 본다 한 것이고 둘째는 나와 너가 함께 죽어야 더불어 돌이 아픔을 알 수 있다 한 것이고 셋째는 일체와 더불어 죽어야 나만의 도리를 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체험해야 비로소 구경각을 이루어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나로 인해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듯 모든게 나로 인해 벌어지니 나를 다 스리면서 안락의 경계를 다 내면에 놓으라는

니까? 그쯤되어야 이로부터 구경각이라 할 수 있고 삼세·삼계를 통달해 자유자재하다 할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내신다. 함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한 생각은 체가 없어서 물바위 불바위 속을 서슴치않고 드러낼 수 있고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그대로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놓으라는 말을 여러번 해도 사람들은 좀처럼 놓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잔뜩 움켜쥐고 착을 두고 욕심을 내면서 아상과 아집에 빠져 연방 ‘내가... 내가...’하며 살고 있으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요.

그래서 놓아라 놓아라 하다가 또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하고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3단계도 이미 3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이것이 옳으나 저것이 옳으나 아니고, 내면이나 바깥이나도 아니고 모두가 아닐 때 비로소 나 아닌게 없구나 하며 통달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세가지 소식을 안다면 나와 일체가 같이 동등하고 우주 천하 전체가 도량인 곳이 없고 일체 천하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봉에 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총림 대흥사님께 물고 답을 들으셔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것이지요. 놓는다 함은 곧 나라는 생각, 아상의 죽는 연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겠지만 모든 현 쇠붙이를 용광로에 넣어 넣듯이 밖에서 오는 경계나 안에서 오는 경계를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 나가다보면 뜻밖의 경계들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 또한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떨어져야 합니다. 죽어야 너를 보리라 한 것은 용광로에 현 쇠붙이를 넣어넣었더니 새 쇠붙이 되어서 나오듯이 일체 경계를 나온 자리에 되느니라 참성품이 발현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나면 또 나와 대상이 들어 아닌 도리를 알기위해 다시 돌아야 합니다. 참성품지에는 너·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놓고 너도 그 자리에 놓는 작업을 해야하지요. 나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 하지만 네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아닌 한 주인공이 나·너를 둘로 보는 생각이 죽어야 불(不二)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나와 대상이 들어 아닌 도리를 알기위해 다시 돌아야 합니다. 참성품지에는 너·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놓고 너도 그 자리에 놓는 작업을 해야하지요. 나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 하지만 네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아닌 한 주인공이 나·너를 둘로 보는 생각이 죽어야 불(不二)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나와 대상이 들어 아닌 도리를 알기위해 다시 돌아야 합니다. 참성품지에는 너·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놓고 너도 그 자리에 놓는 작업을 해야하지요. 나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 하지만 네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아닌 한 주인공이 나·너를 둘로 보는 생각이 죽어야 불(不二)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나 아님이 없고 모두 내 아님 아닌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부를 잘 하시기 되면 이 중요한 시대에 살면서 마음의 법으로써 일체를 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러하냐면 그런 분들이 마음을 내고 들이는데 따라 그대로 참마음이 거기에 응해주기 때문인겁니다.

앞에서 사람을 건지려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돌이 아니기에 막강한 나뭇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내내대로 산신으로도 응하고 관세음보살로도 응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 이든지 다 참성품의 나뭇이니 상대로 보고 들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나뭇이란 부처님께서 한 발 내디디시는 보살행과 같은 것이기에 진실로 나와 너가 하나되고 세상의 아픔과 내아픔이 하나되는, 그야말로 차별이 무너지고 다같이 평등한 지리가 되는 그런 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도리를 증득했다는 것은 결코 자기만의 개별적인 완성이 아니라 전체가 한 데 합쳐진 다같이 들어가는 완성인 것입니다.

고로 내가 죽어 나를 보는 첫단계를 공부의 전부로 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를 맞보게 되므로 다만 일부를 아는데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구경각, 해탈 열반의 도리를 설하셨습니다.



“정보에 폭탄 떨어뜨릴 수 없었죠”

해인사 폭격명령 거부한 장지량 씨

“해마다 이때쯤에 해인사에 가고 싶어집니다. 장경각에 둘러 경관들도 보고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도하고 싶어 집니다.” 6월이면 유난히 해인사를 가고 싶다는 장지량(72·前공군참모총장) 한국군사학회 회장. 그는 해고영환대령(54년 작고)

과 함께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키는 호법신장이다.

1951년 7월에 그는 한국 제1 전투 비행단 참모였다.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그는 상부로부터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인민군 3백여명이 해인사로 숨어들었다는 것

이다. 그는 부단장인 김영환대령과 함께 “이 명령을 수행할 경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 잿더미가 된다. 어차피 인민군은 3~4일후엔 식량이 없어 절에서 나갈텐데 우리 민족의 자립인 대장경을 폭격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투기를 이륙시키지 않았다. 때문에 미군군사고문관 윌슨대위와 설전을 벌여야 했고 이승만대통령의 노여움까지 사야 했다. “해인사에 가면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였다든 확신을 갖게 됩니다. 팔만대장경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때 저는 전쟁당시를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었습니다.” 장희장은 해인사를 폭격에서 구한 이야기를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과의 담으로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을 통해 들려준다. 방송은 25일 오후 5시10분. <태>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속뜸비법”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않는”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병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속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속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속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속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속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대장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고픔,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비염,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장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속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속만을 임선하여 속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속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뜰속기등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제래식 뜰속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속뜸 링받침과 이것을 발칠수 있는 또하나의 발침대 2종류를 사용하고,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써 흥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속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속뜸은 속을 태울때 생기는 속익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속뜸에서는 속익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따구명)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의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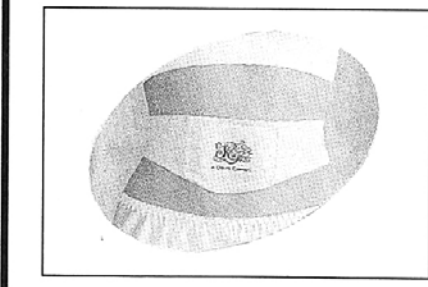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수 있는 정이 큰 뜰속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기간이 되는 매듭, 단침, 중앙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흥터가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속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속뜸건강요법

구입방법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천동 581번지
(한신기숙사동)
•대천불교도교 불교문화원(한양 대학 소년)
•부산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전북 (051)864-3740
•인천 (051)864-374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오정동 유원리 30-1 (농원빌딩3층) 성지문화회
•전북 (033)314-9490, 39-1906
•대전 (042)747-3060
•서울 (02)597-7581
•서울 (02)747-7033
•부산 (051)516-2713(여정장사)
•대구 (053)323-2598
•대전 (042)222-4936
•광주 (062)228-8544
•제주 (064)22-3324
•경기 수원 남부지 (033)1291-8549
•경남 진주시 북부지 (055)733-0039
•경남 창원지 (055)123-9016
•경남 창원지 (052)74-7536
•광주지 (055)162-0076
•세천안지 (044)346-3023
•대전지 (035)1873-0532
•경주지 (056)11772-3265

A · Q · U · E · E · N · C · O · N · S · O · R · T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요법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번히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일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희고 딱딱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쪼뼂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 )
15. 전방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질환이 있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한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